

농어촌공사 진도, 농지이양 은퇴직불‘일시지급형’ 전남 첫 가입자 탄생

✎ 김육봉(=호남) 기자 | ⓒ 승인 2025.03.27 14:58



[사진 제공=농어촌공사]

[폴리뉴스 김육봉(=호남) 기자]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는 전남 최초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‘일시지급형’ 가입자가 등장했다고 27일 밝혔다.

가입자 박씨는 0.6ha 농지를 매도하고 농지 매도대금과 함께 고령 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은퇴직불 보조금 약 2700만원을 일시지급 받게 될 예정이다.

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은 고령 농업인이 질병, 상해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영농 활동이 불가하여 농지를 매도하게 되면 매도대금과 별도로 은퇴직불금을 지급하며 이양된 농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지원함을 통해 고령 농업인 소득안정 및 청년 농업인 육성 두 가지에 모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다.

신청 자격은 ▲만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 중 ▲10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경력을 가진 농업인이며 ▲가입대상 농지는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경지정리 된 비진흥지역의 논·밭·과수를 대상으로 한다.

가입방식 및 지원금액은 농지이양 방법에 따라 다르며 농지를 ▲즉시 매도할 경우 농지 매도대금과 동시에 1ha당 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▲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 매도를 하는 매도조건부 임대형의 경우 1ha당 40만 원, 은퇴직불형 농지연금(월 최대 300만 원), 농지임대료, 농지매도대금(농지연금 채무액 제외)를 모두 받을 수 있다.

아울러 올해 신규로 추가된 ‘은퇴직불 일시지급형’의 경우 ‘분할지급형’을 통해 전체기간 총 지급 받을 보조금을 연령에 따라 70~100% 범위에서 일시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고령농업의 보조금 혜택 선택지가 많아지면서 가입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.

박씨는 “은퇴직불 제도를 통해 고령 농업인도 일반 회사원들이 받는 퇴직금과 같은 비슷한 혜택을 받게돼 망설이고 있었던 영농은퇴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”며 “지원받은 직불금을 통해 도시에 있는 자녀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됐고 앞으로는 지금껏 못했던 가족여행을 함께 갈 예정이다”고 말했다.



김육봉(=호남) 기자 news1@polinews.co.kr